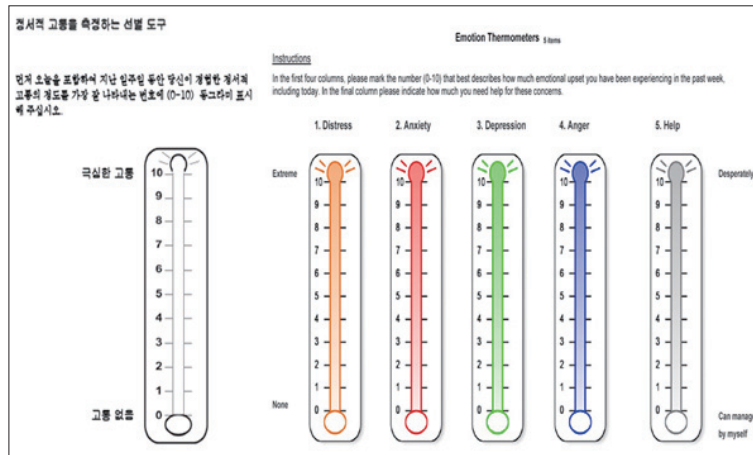


Images in Psychiatry

Edited by Jae-Jin Kim



그림은 정신종양학 진료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암환자용 스트레스 선별도구이다. 2010년 1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2000년에 286.8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361.9명으로 20%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암센터의 최근 2011년 10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암진단을 받은 4,600명의 환자 중 51.1%가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기검진과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지속적인 신치료기술의 개발 덕분에 이제 우리는 '암을 이겨내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암은 우리 사회에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야 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물론 암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함께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암환자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들은 암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공감하며 도와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Maggie Watson은 유방암 환자들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해 10년 이상의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암에 대한 정신적 적응태도를 분석하여 초기의 절망감이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하버드대의 종양학 교수인 Jerome Groopman은 '희망'은 어떤 항암제보다 강력한 효과로 종양세포를 녹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암환자가 치료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희망'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은 우리 정신과 의사들의 역할이다. '불안'을 떨치고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치료 과정에서 암을 두려워하기보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만나게 되는 친구와 여행을 떠나듯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가도록 돕는 학문이 '정신종양학'이다. 아울러, 환자만큼이나 고통을 받는 가족과 치료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치료진을 도울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도 정신종양학의 몫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이제 막 발전해가는 '임상정신의학'의 한 분야로, 이 시대 정신과 의사에게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석정호(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